

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1. 8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2

I. 일반개황

면적	74천 Km ²	G D P	269억 달러(2010년)
인구	3.50백만 명(2010년)	1 인 당 GDP	7,678달러(2010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Balboa(B), 달러 공용
대외정책	실리주의	환율(달러당)	1.00(2010년 말)

-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기준 총인구 3.5백만 명, 1인당 GDP 7,678달러의 중소득국가임. 금융시장 개방과 달러화의 자유로운 유통 등의 요인으로 중계무역, 국제금융 등 서비스 분야가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.
- 1990년대 이후 금융거래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, 건설업 및 관광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, 2005년 이후 운하 확장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황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양호한 경제성장률 시현

- 2006년 이후 파나마 경제는 운하 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8%~12% 대의 중남미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, 2008년에도 운하확장 공사에 따른 건설업 호황, 고용 창출, 내수 수요 증대 등으로 10.1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착공에 따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,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운하 수입 감소,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위축 등으로 3%대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, 2010년에는 운하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 및 FDI 유입세 회복으로 7.5%의 빠른 경제성장세를 기록하였음. 2011년에는 운하 확장 공사로 인한 투자증가세 지속, 물동량 증가세로 인한 운하 수입 증가 등으로 6.8%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

- 전임 또리호스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1% 수준으로, 공공부문 부채를 GDP의 60%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세수 증대 노력과 정부지출 축소를 추진하였음. 그 결과, 200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.2%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였으며, 2007년에는 3.5%로 흑자폭이 확대됨.
- 2008년에는 운하확장 사업 등 공공인프라 및 교육, 보건 등의 사회부문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은 전년대비 축소된 0.4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 7월 취임한 마르띠넬리 대통령도 기존의 재정정책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, 파나마운하 수입 및 수출 관련 세수 감소, 경기부양 관련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2009년 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(GDP의 -1.1%)로 전환되었음.

-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(5%→7%)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(3월)하여 세수가 증가하였으나, 경기부양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-1.9%로 확대되었으며, 2011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-2.4%로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물가 상승압력 확대

- 2007년에는 또리호스(Torrijos) 정부의 휘발유 및 디젤 수입관세 감축 등 물가 상승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.4%를 기록하였고, 2008년에는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지난 29년간 가장 높은 6.8%로 상승하였음.
-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원자재 및 식료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.9%로 크게 낮아졌음.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농산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9%로 상승하였음. 2011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물가 상승률이 8%로 상승할 전망이다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 ^e	2011 ^f
경제성장률	12.1	10.1	3.2	7.5	6.8
재정수지 / GDP	3.5	0.4	-1.1	-1.9	-2.4
소비자물가상승률	6.4	6.8	1.9	4.9	8.0

자료: IMF, EIU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최근 제조업 부문 확대 위한 투자 증가

- 파나마 경제는 총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6% 이상으로 전체 산업 중 파나마 운하 수입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며,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관련 인프라 설비가 미비함.
- 국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제조업과 수출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제조업 부문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.

□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

- 주요 수출품목은 바나나, 새우, 커피 등으로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제 가격 변동과 기후 조건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국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자본재,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음.
- 주요 교역 대상국은 미국으로, 2010년 전체 수출의 34.9%, 수입의 30.2%를 차지하는 등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, 파나마 운하 수입 및 콜론 자유무역 지대 등의 경기가 세계경기와 부침을 같이하는 등 경제 전반이 외부 요인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추구

-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함에 따라 중계무역과 해상운송의 중심지이자 중미의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향후 파나마 운하 확장을 통한 수익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운하 확장과 관련하여 건설 및 금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. 2006-08년 동안 연평균 FDI 유입액은 2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,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7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으며,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시행

- 대표적인 조세회피처(tax heaven) 중 하나인 파나마는 기업비밀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관련 법규는 없으며, 기업법, 은행법, 노동법 등 개별 법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함.
- 한편,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, 무역 대금 결제,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음.

□ 달러공용화제도 시행

- 미 달러화가 공식 법정통화이며, 자국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고 있음. 파나마는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임.
- 한편, 파나마는 여타 중남미국가와 달리 정부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따로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,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영업 중인 중미 국제금융의 중심지임.

3. 대외거래

□ 경상수지 적자규모 대폭 확대

- 파나마는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, 최근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.

- 2007~08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32억 달러와 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-7.1%와 -11.8%로 크게 확대됨.
- 2009년에는 수출은 다소 증가한 반면, 수입이 대폭 감소(전년대비 16억 달러 감소한 133억 달러)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대폭 개선되었고, 경상수지가 균형에 근접하였음.
- 2010년 들어서는 2009년에 지연되었던 인프라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, 이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-11.0%로 대폭 확대됨. 2011년에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-12.5%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외환보유액 증가세

- 운하 수입 증가 및 FDI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2011년에 3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.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 ^e	2011 ^f
경 상 수 지	-1,407	-2,722	-44	-2,953	-3,828
경 상 수 지 / G D P	-7.1	-11.8	-0.2	-11.0	-12.5
상 품 수 지	-3,190	-4,546	-2,123	-4,615	-5,951
수 출	9,334	10,323	11,133	11,330	13,111
수 입	12,524	14,869	13,256	15,946	19,062
외 환 보 유 액	1,935	2,424	3,028	2,715	3,015
총 외 채 잔 액	10,241	10,721	12,418	13,217	13,741
총 외 채 잔 액 / GDP	49.8	48.9	52.9	53.8	50.5
D. S. R.	11.7	21.1	10.4	11.5	10.9

자료: IFS, EIU.

□ 외채규모 과중

- 파나마의 2010년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132억 달러로서 GDP의 54%에 달하는 등 여전히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며, 향후 운하 확장사업에 필요한 차입 증가로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 동국 정부가 세계개혁*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,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
* 2010년 3월 부가가치세(ITBMS) 세율을 5%에서 7%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09년 7월 마르띠넬리 정권 출범하여 친시장적이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영 중

- 2009년 5월 대선에서 야당 연합 세력인 '변화를 위한 연합(AllianzaporelCambio)'의 대선 후보 리카르도 마르띠넬리(RicardoMartinelli)가 승리하였으며, 함께 치뤄진 총선에서 연합 세력이 71석 중 41석을 차지하며 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함.
- 마르띠넬리는 파나마 최대 슈퍼마켓체인인 '슈퍼99'의 소유주이며, 파나마의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됨.
- 마르띠넬리 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치안 강화 및 부패 척결을 위해 부임하자마자 경찰 봉급 상향조정을 발표하였으며, 2010년 3월에 세수 확대를 위한 세계개혁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

- 빈부격차, 높은 실업률, 부정 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존재하나,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반정부 단체의 활동도 없어 내란 발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.

□ 단순 노동력이 풍부하며, 임금 수준 비교적 높은 편

- 파나마 노동법은 외국기업이 일정 비율(95%)의 현지인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파나마는 숙련 노동 인력은 부족한 편이나 단순 노동력은 풍부한 편임. 노동 생산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, 중미 국가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.
- 2010년 1월 이후 시행된 새로운 최저임금법에 의해 A지역(파나마, 콜론, 산미겔리토 등 주요 경제 도시)은 357달러에서 416달러로 상승하였으며, B지역(나머지 도시)에서는 31달러에서 95달러로 크게 상승함.

3. 국제관계

□ 미국 등의 국가들과 FTA 체결

- 파나마는 미국과의 FTA 발효가 현재 최우선 외교과제임. 2006년 12월 미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나, 현재 미국 의회내의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한편 파나마 정부는 칠레, 싱가포르(2006년), 온두라스(2007년), 과테말라(2008년) 와도 FTA를 체결하였고, 2010년 5월에는 중미-EU 제휴 협정에도 정회원국으로 참여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

- 1980년대 중반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파나마는 1987년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, 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, 이후 정치, 사회안정 및 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되었으며, 1990년에 파리클럽과 공적채무재조정에도 합의하였음.
- 1996년 7월에는 38억달러 규모의 상업채무 연체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브래디 본드를 발행하는 등 동국 정부의 외채부담 완화 노력으로 파나마의 대외채무는 거의 모두 재조정되었으며, 이후 외채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.
- 채권기관과의 관계 정상화로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으며, 2006년 1월 14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30년 만기, 쿠폰 이자율 6.7%로 기존 발행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.
- 글로벌 본드로 조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브래디 본드를 환매(buyback)하는 데 사용하였으며, 이외에도 파나마 정부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민영화 자금으로 외채를 상환, 외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- 특히,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신인도를 제고시키고자 노력중인데, 파나마 운하 위원회 (Autoridad del Canal de Panama, ACP)는 본 사업에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2010년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부여

- OECD는 거시경제지표 호전 및 정치적 안정, 은행 부문의 발전, IMF 등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, 기업환경 개선 등을 근거로 하여 2007년 6월 이후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.
- S&P도 2008년 2월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에서 BB+로 한 등급 상향조정한데 이어 2010년 5월에는 거시경제 및 정치안정, 재정수지의 개선을 이유로 투자적격등급인 BBB-로 상향조정함.
- Moody's도 2010년 2월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며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었고, 2010년 6월 재정 및 외채 관련 지표의 개선과 파나마 운하 건설 관련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이유로 파나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aa3로 상향조정하였음.
- Fitch는 2010년 3월 조세개혁 등 파나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+에서 BBB-로 상향조정함.

<표 3>

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C1 (2011.08.)	C1 (2010.06.)
OECD	3등급 (2011.06.)	3등급 (2010.07.)
S&P	BBB- (2011.07.)	BBB- (2010.05.)
Moody's	Baa3 (2010.06.)	Ba1 (2010.02.)
Fitch	BBB (2011.06.)	BBB- (2010.03.)

3. 주요 ECA 인수태도

- 미국 EXIM: 최고 부보율 적용
- 영국 ECGD: 최고 부보율 적용
- 독일 Hermes: 단기전액인수 가능

4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62. 09. 30. 수교 (북한과는 미수교)

□ 주요협정: 문화협정('74), 항공협정('79), 사증면제협정('01), 투자보장협정('01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□ 대 파나마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 기록

○ 2010년 기준 대 파나마 수출은 40.5억달러, 수입은 5.7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.

* 우리나라는 1977년 이후 파나마와의 교역에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 중임.

□ 선박펀드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 증가 추세

○ 대 파나마 해외직접투자(ODI)는 2010년 12월말 현재 법인수 154개에 대해 13억 달러를 기록중임.

○ 대 파나마 해외직접투자(ODI)는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말 누계 기준 파나마는 중남미 역내 가장 많은 규모의 ODI 투자대상국임.

○ 2009년 ODI 규모는 전년대비 약 14% 감소하였으나, 2008년에 이어 2억 달러를 상회하여 역내1위, 전체 국가 중 20위를 차지함.

○ 2010년 들어서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선박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ODI 규모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(약 74%)한 0.5억 달러에 그쳤음.

<표 5> 한·브라질 교역 규모

단위 : 천 달러

	2008	2009	2010	주요품목
수 출	5,925,866	5,311,210	7,752,579	운송장비, 대두, 커피, 자동차
수 입	4,380,460	3,743,503	4,712,085	기계 전자및운송기 원유 화학제품
합 계	10,306,326	9,054,713	12,464,664	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2004년 이후 세계 선박 경기 활성화로 인해 우리나라 해운사의 파나마 편외 치적 선박에 대한 투자목적의 대 파나마 선박펀드 투자가 급증하여, 동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8~2009년 對파나마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.

V. 종합 의견

- 파나마 경제는 최근 10년간 운하 수입 증가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음. 2009년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축소와 내수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3% 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고, 2010년에 운하 개발 관련 인프라 투자 및 FDI 유입세 회복으로 7.5%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음. 2011년에는 운하 확장 공사로 인한 투자증가세 지속, 물동량 증가세로 인한 운하 수입 증가 등으로 6.8%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.
- 2009년 5월 대선에서 야당 연합세력(AlliancefortheChange)의 마르띠넬리 정부가 출범하여 부패 척결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 최근 세계개혁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는 등 전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함.
- 최근 파나마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외채규모도 증가 추세이나, 마르띠네스 정부가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,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FDI 유입세 증가로 파나마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.
- 집권 여당의 지우마 호우세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, 최근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정치, 사회적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.

문의 : 책임조사역 이기수(☎3779-5719)

E-mail : real_ksl@koreaexim.go.kr